| 산업통상자원부 「제조업」르네상스 | 보도참고자료 | 보다 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19년 9월 4일(수) 16:3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| 배포일시 | 2019. 9. 4.(수) | 담당부서 | 전자전기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전자전기과<br>남명우 과장(044-203-4340) | 담 당 자 | 김현동 사무관(044-203-4343) |

# 산업부 장관, 합성석영[소재] 생산기업[대한광통신] 방문

## - 일본 독점 핵심소재 국산화 성공 사례 공유 -
## - 수요-공급기업간 연계강화 방안 모색 -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9월 4일(수) 오후 안산 소재 합성석영 생산기업인 **대한광통신㈜**을 방문하였다.

**【 현장방문 개요 】**

- ㅇ 일시 / 장소 : '19. 9. 4(수) 16:30~17:20 / 대한광통신㈜
- ㅇ 참석자 : (산업부) 성윤모 산업부장관, 제조산업정책관, 전자전기과장 등
  (대한광통신) 박하영 대표 등 임직원
- ㅇ 주요 내용 : 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

ㅇ 이번 방문은 지난 주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된 이후 국내 소재·부품 업계의 영향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,

ㅇ **연구개발·생산 현장**의 목소리를 경청하고, **국내 소재기업**의 **경쟁력 강화 방안**을 **모색**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□ 대한광통신은 **국내 유일 합성석영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**으로 광통신 케이블, 광섬유 분야에서 40년 이상 경쟁력을 유지해 온 강소기업이며, 미국·유럽 등 33개국에 제품을 수출하여 '18년 수출 960억원을 달성하였다.

ㅇ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광통신 측은 **과감한 투자**를 통해 **반도체 블랭크 마스크*에 활용되는 석영기판 소재 및 제조공정**의 국산화 성공 사례를 소개하였다.

* 반도체 기판에 회로를 그리는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



ㅇ 또한, 박하영 대표는 "소재·부품 국산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-공급기업 간 연계개발이 중요하다"며,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도 소재·부품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.

□ **성윤모 장관**은 합성석영 소재를 만드는 공정을 차례로 둘러보고 "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인들과 정부 모두, 우리 소재·부품 기업과 국산 기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"고 말하며,

ㅇ "대한광통신 임직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 극일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한다"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.

□ 또한, "**정부**는 제조업의 중추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**소재·부품·장비**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**수요-공급기업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R&D 제도개선**과 **예산, 금융, 세제, 규제특례** 등 **전방위적**으로 **국가적 역량**을 **집중 투입**하고 있다"고 **강조**하며,

ㅇ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**해결**하기 위해서는 **정부**와 더불어 **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**의 **의지와 노력**이 **어느 때** 보다 **절실**한 상황인 만큼,

ㅇ 대한광통신도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의 국산화 경험을 다른 기업에도 공유하는 등 합성석영 소재 전문기업으로서 **국산 소재 경쟁력 향상을** 위해 **지속 노력**하여 줄 것을 **당부**하였다.

**※ 현장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현동 사무관(☎ 044-203-43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